

사회

# 수학여행 버스 음주기사

## 광주 운리중, 출발 전 측정 적발... 긴급 교체

면허받지 못한 음주 상태로 수학여행 버스를 운전하려던 40대 기사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교체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068% 수치로 운전한 N여행사 소속 수학여행 버스 운전기사 김모(4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오전 광주시 광산구 한 차고지에서 광주시 서구 풍암동 롯데마트 주차장까지 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2박3일 일정으로 경기도와 서울 등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광주시 서구 운리중학교 2학년 9개 반 331명 학생 가운데 1개 반의 버스 운전을 위해 대기중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은 이날 '수학여행 관련 운행 버스기사 상대 교통안전교육 및 음주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운리중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서 버스기사 9명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김씨는 측정과정에서 감지기가 반응하자 "홍삼 캔디를 먹어서 반응하는 것 같다"고 우기며 물을 마시는 등 음주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측정 과정에서 감지기가 반응하자 "홍삼 캔디를 먹어서 반응하는 것 같다"고 우기며 물을 마시는 등 음주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측정 이후에도 "전날 밤에 버스를 차고지에서 수학여행 출발 장소인 풍암동 롯데마트 주차장으로 이동시켜놓고 오전에는 운전을 하지 않

았다"고 우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29일)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으며 편찮을 줄 알았는데 술이 아직 깨지 않은 것 같다. 본래 술이 약하다.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운리중은 버스 운전기사를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하느라 예정보다 1시간 가량 늦게 수학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운리중 김영미 교감은 "최근 곳곳에서 수학여행 버스 사고 기사를 많이 접했는데, 출발 전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우리 부모 죽여주면 6억 주겠다”

## 목포경찰, 거액 보험금 노리고 살해 사주 10대 둘 구속

### 실패하자 강도 위장 신고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후배를 시켜 부모를 살해하려던 비정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후배가 첫 범행에 실패하자 다음날 재차 범행을 시켰고, 이를 함께 강도로 위장하는 등 패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은 29일 부모 살해를 사주한 아들 김모(19)군과 김군이 시킨대로 범행한 이모(14)군을 존속살해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군의 사주를 받은 이군은 지난 24일 새벽 2시에 목포시 용당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군의 아버지 김모(58)씨와 어머니 박모(52)씨의 머리를 준비해간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이군의 범행이 부모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자, 태연히 경찰에 강도가 들었다고 신고했다. 김군은 집안 창문을 고의로 부수는 등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현장을 위장했다.

김군의 부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김군이 진술을 반복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집중 추궁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은 일주일 전 친구 소개로 만난 4년 후배인 목포 모고등학교 1학년 이군에게 6억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했다. 김군은 이

군에게 “부모 중 한 사람을 죽이면 3억, 두 사람 모두 죽이면 6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애초 지난 23일을 범행날짜로 정하고 김군이 이군에게 대문을 열어줬으나 당시 부모들이 잠들지 않아 실패했다.

고교 중퇴생인 김군은 부모 명의로 10개의 상해·생명보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노렸다. 자신을 흉내한다고 판단한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챙기려한 것이다.

김군은 경찰에서 “최근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 “부모가 평소 나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신경 써주지도 않고, 성실한 사촌형과 비교하는 것이 싫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 등은 범행도 구 준비와 방법, 사후 처리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모의했다”면서 “부모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지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군은 경찰에서 “최근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 “부모가 평소 나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신경 써주지도 않고, 성실한 사촌형과 비교하는 것이 싫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 등은 범행도 구 준비와 방법, 사후 처리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모의했다”면서 “부모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지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군은 경찰에서 “최근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 “부모가 평소 나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신경 써주지도 않고, 성실한 사촌형과 비교하는 것이 싫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 등은 범행도 구 준비와 방법, 사후 처리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모의했다”면서 “부모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지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모기 박멸 주택가 연막소독

29일 광주시 북구 보건소 방역단원들이 두암동 주택가에서 여름철 모기박멸을 위해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인터넷에 글 올려 공범 모집

### 부녀자 납치·어린이날 강도사건 동일범

지난 3월 광주에서 발생한 부녀자 납치강도 사건과 ‘어린이날 강도살인사건’(본보 4일자 6면) 일당 중 1명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37)씨는 인터넷에 글을 남겨 공범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서부경찰은 29일 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문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허

모(35)씨를 강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5일 밤 9시50분께 광주시 서구 마북동 한 고급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김모(여·43)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 620만원을 가로챘 뒤 2시간여 만에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앞서 지난 4월 9시50분께 서구 치평동 도로변에서 조모(30)씨와 함께 광고 전단지

보고 찾아온 김모(33)씨를 흉기로 찌르고 10만원을 빼앗았다가 구속 기소됐다.

문씨는 포탈사이트 게시판에 생활고를 호소하는 네티즌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라는 글과 댓글을 남기고 연락을 해온 허씨와 조씨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문씨의 휴대전화 등에 범행 가담 의사를 밝힌 네티즌들을 강도예비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들 구속

### 전남서 올 67명 피해

경찰을 사칭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통장에서 돈을 빼내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김모(26)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께 화순에 거주하는 김모(여·36)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라고 신분을 속인 뒤 “전화 사기사건에 연루됐으며, 향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접속하라”고 속여 김씨를 가짜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도했다. 이후 김씨 등은 피해자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자 곧바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가로챘 혐의다.

경찰은 지난 22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김씨 등을 붙잡아 현금 495만원과 현금카드 13매, 대포폰 5대 등을 압수했으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남지역에서 이 같은 전화금융사기로 6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금액은 5억원에 달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니원침 (8576) 김종두



## 도심 사찰 화재 주지 숨져

석가탄신일 이튿날인 29일 오전 9시15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 5층 주상복합건물 옥상의 조립식 건물에 세워있는 J사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사찰에서 생활하는 주지 김모(47)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건물(60여㎡) 내부가 전소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흉친 차에 조각 지문 남겨 달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흉친 차에 조각 지문(일명 쪽지문)을 남긴 20대 초등학교 동창들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범행 1년 4개월 만에 달미.

○광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은 29일 지난해 초 차량을 훔쳐 광주지역 일원에서 심야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핸드백을 납치기한 정모(23)씨, 김모(22)씨 등 2명을 붙잡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이들의 범행은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으나 미제전담팀이 5건의 납치 사건에서 유사점을 찾아내고 감정이 불가능한 엄지손가락의 일부 지문 파편을 발견, 유사한 범죄로 수감 중인 김씨의 지문과 대조한 끝에 범행 일체를 파악.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 ASEAN CULTURE & TOURISM FAIR 2012 아세안축제

2012. 6. 6  
여수세계박람회 엑스포홀 EXPO HALL 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2012. 6. 9-10  
디큐브시티 내 야외무대 신도림역 디큐브파크 D-CUBE PARK in D-CUBE CITY SHINDORIM, SEOUL

ASEAN MEMBER STATES: BRUNEI DARUSSALAM | CAMBODIA | INDONESIA | LAO PDR | MALAYSIA | MYANMAR | PHILIPPINES | SINGAPORE | THAILAND | VIETNAM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